수양버들 봄마중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10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용지(龍池) 주변의 수양버들이 물기를 머금고 새봄맞이 채비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까지 광주·전남에 10~3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음해성 고소 미리 걸러낸다

광주지검, 전담 검사·담당부서 신설

'거짓말 범죄 전국 최고' 오명 벗기로

검찰이 음해성 고소나 고발 등 이른바 '거짓말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거짓말'에 의한 악성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퇴짜'를 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위증과 무고 등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같은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악성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전에 미리 걸러내기 위해 고소전담 검사직과 담당부서를 광주지검 등 전국 13개 지검에 신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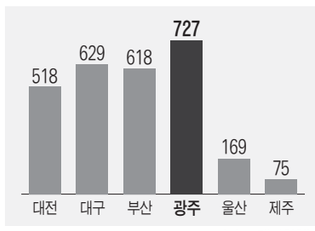
고소전담 부서는 부장급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꾸려진다. 고소전담 검사는 형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사 여부를 결정하며, 수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시키게 된다.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거짓말 범죄'가 사법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걸러지는 것이다.

검찰이 '거짓말 범죄'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은 그동안 위증과 무고 등에 의한 수사 및 재판 피해가 막대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거짓말 범죄'는 사건 자체를 허위로 꾸며내는 것이어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대 방해요인으로 꼽힌다. 심지어 일부 악성 '거짓말'의 경우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내몰기도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요구돼 왔다.

전국 지검별 위증 무고사범 접수건수

〈2009. 1~6월·단위:건〉



〈자료:대검찰청〉

더욱이 광주·전남은 '거짓말 범죄'로 인한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의 근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들어 상반기까지 6개월간 광주지검에 접수된 위증·무고사범은 총 7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년간 접수건수(1천46건)의 69.5%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이같은 수치는 제주지검(75건)의 10배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사범'은 되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지검에 이어 ▲대구지검(629건) ▲부산지검(618건) ▲대전지검(518건) ▲창원지검(494건) ▲전주지검(247건) ▲청주지검(181건) ▲울산지검(169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1년간 위증(90명)과 무고(70명), 범인도피(29명) 등 '거짓말 사범' 18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의 경우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여·25)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남성의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387명이 사법처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초임 검사 호남 약진

95명 중 24명…서울 이어 두 번째

2010년 임관한 신임검사 가운데 호남출신이 서울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임관한 검사 95명 중 호남 출신은 24명으로, 서울 출신(3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12명, 부산·경남 10명, 충청 9명, 경기(인천 포함) 3명, 제주 2명, 강원 1명 등의 순이었다.

호남출신 신임 검사 숫자는 대구·경북과 부상·경남 출신을 합한 22명보다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호남 출신 신임 검사 비율은 25.3%로 지난해 기준 전체 검사 중 호남 출신비율이 17.8%인 것과 비교하면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다. 2009년 전체 검사를 출신지별로 분류할 경우 서울 641, 영남 510명, 호남 310명 순이었다.

또 올해 신임검사 중 전남대 출신이 2명 임용된 가운데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32명으로 여전히 1위였다. 고려대·연세대 15명, 성균관대 6명, 동국대 4명, 이화여대·경희대·한양대·아주대 3명, 부산대·경북대 2명, 서강대·외대·인하대·인천대 1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고교별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경북고나 서울고가 지고 외국어고가 강세를 보였다. 신임검사 95명 중 대원외고 5명·한영외고 4명·명덕외고 3명·대일외고 3명 등 외국어고 출신이 17명이나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통기한 210일 지난 원료로 떡 만들어

설 성수품 단속 20곳 적발

강정의 유통기한을 450일이나 연장한 한과류 업체 등 비위생 설 성수식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전남에서는 S떡업체가 유통기한이 210일 지난 원료를 사용해 떡을 제조·판매했다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20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1~29일 16개 시·도와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업체 4천4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적발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와 부적합 제품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선배 졸업식 참석 귀가길

고교생 열차에 치여 숨져

10일 낮 12시10분께 보성군 보성역에서 1㎞ 떨어진 철로에서 홍모(18·보성고 2년)군이 부산발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홍군은 이날 선배들의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홍군이 철길을 건너다 열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완도해경 '바다의 119' 역할 톡톡

침몰 현장 신속 출동

중국인 선원 9명 구조

완도해양경찰이 짙은 안개 속에서 발생한 선박침몰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선원들의 목숨을 구해 냈다.

10일 새벽 5시20분께 완도군 하흥포 남쪽 5㎞ 해상에서 광양선적 2천821t급 컨테이너선(선장·여모·56)과 중국선적 180t급 냉동 운반선 'HAIQING2호'(선장·판모·47)가 충돌, 중국선박이 침몰했다.

선체가 침몰하던 중 간절하게 구조를 요청하던 중국인 선장·선원 9명은 광양선적 컨테이너선 항해사 박모(45)씨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2척의 완도해경 경비정에 의해 전원 목숨을 건졌다.

이날 사고 해역은 짙은 바다 안개로 시계가 10m에 불과했고, 파고는 1.5m로 비교적 높게 일었다. 완도 해경은 2~6월 안개가 짙어져 해상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해 출동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던 중 이날 사고 접수 후 신속하게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해경은 'HAIQING2호'에 5t의 기름이 실려 있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에 따라 방제정을 긴급 투입해 300m 가량의 오일펜스를 설치한 뒤, 기름 유출량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하남공단 편의점 강도

광산경찰, 20대 2명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10일 편의점에 들어가 둔기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본보 3일자 6면〉 이모(22)씨 등 2명을 강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심모(17)군을 둔기로 때린 뒤 현금 5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생선에 색소 발라 판매

여수해경, 수산물 판매·보관 업자 등 3명 검거

여수해양경찰은 10일 육류나 어패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 색소를 칠해 냉동처리한 부세를 판매한 수산물 판매업자 전모(60)·조모(39)씨와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냉동 보관해온 장모(62)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전씨와 조씨는 식용색소인 '황색 4호'를 뿌리거나 칠해 냉동처리한 부세 30㎏을 시중에 판매하고 진열, 냉동보관해온 혐의이다.

또 장씨는 유통기한이 각각 2004년 3월과 2005년 9월까지인 우루과이산 조기 200㎏과 중국산 옥돔 80㎏ 등 총 280㎏을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이날 현재까지 자신의 냉동창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처리된 붉은 황색 빛의 '부세'를 녹여 진열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신선함을 보여주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고시원 들어가 잠자는 여성에 못된짓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10일 문이 열려 있는 고시원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대학생 박모(20·북구 각화동)씨를 준강제추행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고시원에 사는 A(여·22)씨의 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A씨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

○…경찰 조사결과 A씨와 같은 고시원에서 대학 편입시험을 준비 중이던 박씨는 A씨의 방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못된 짓을 저질렀다는 것.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